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7. Vol. 12, No. 1, 95 - 110

사회 불안과 모호한 사회적 상황에 대한 해석 편향

박 신 재	현 명 호 [†]	이 재 호	이 정 아
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	계명대학교	중앙대학교
정신과	심리학과	심리학과	심리학과

본 연구는 사회불안의 모호한 사회적 상황에 대한 해석 과정을 어휘판단과제를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316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 척도를 실시하여 사회불안이 높은 집단 (21명)과 사회불안이 낮은 집단(25명)을 선발하였고, 참가자들에게 모호한 사회적 맥락과 통제 맥락 다음에 나오는 목표 단어에 대한 어휘판단 과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불안이 높은 집단은 위협 단어에 대한 모호 맥락의 어휘판단시간이 통제 맥락보다 빨랐으나, 사회불안이 낮은 집단은 맥락에 따른 어휘판단시간에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비위협 단어에 대해서 두 집단 모두 모호 맥락의 어휘판단시간이 통제 맥락보다 빠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불안이 높은 집단이 사회불안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모호한 사회적 상황에서 위협적으로 해석하지만, 위협적 해석 편향을 보인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의 위협적, 혹은 비위협적 해석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Hirsch와 Mathews (2000)의 입장이 지지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 및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이 제시되었다.

주요어 : 사회불안, 모호한 사회적 상황, 해석편향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현명호, 서울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02-820-5125, E-mail: hyunmh@cau.ac.kr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친밀한 사람과의 만남에서부터 낯선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거나 대중 앞에서 발표를 하는 등의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접하게 된다. 타인이 주시하는 가운데 수행을 하게 될 때 어느 정도의 긴장감과 불편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사회적 상황에서 지나치게 긴장하고 불안함을 경험하여, 결국 이런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와 같이 ‘낯선 사람들’에게 노출되거나 타인이 지켜볼 수 있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사회적 혹은 수행 상황에서 현저하고 지속적인 두려움을 보이며, 그런 상황에서 수치스럽거나 당황스럽게 행동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사회공포증(사회불안장애)이라 한다(APA, 1994; Heimberg, 1994; 김현수, 1997에서 재인용).

사회불안장애는 개인의 일상적인 사회 활동을 위축시키고 직업, 학업 및 대인 관계 등 중요한 생활 영역에 심각한 손상을 준다. 예를 들면, 사회불안장애자의 90%는 두려움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피하며 승진이나 일자리 제의를 받더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부담스러워 종종 거절한다(Mattick, Peters, & Clarke, 1989). 또한 사회불안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결혼률이 낮고(Schneier, Johnson, Hornig, Liebowitz, & Weissman, 1992), 임상적 수준이나 그에 버금가는 우울증을 경험하며(Liebowitz, Gorman, Fyer, & Klein, 1985),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과도하게 음주를 하기도 한다(Carrigan & Randall, 2003).

사회불안 장애에 대해서 다각적인 접근이 시도되어 왔는데 1980년대 정서장애에 대한 인지적 접근(Beck & Emery, 1985)의 활성화와 더불어, 사회불안 장애에 대해서도 인지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

론이 제기되어 왔다(Clark & Wells, 1995; Rapee & Heimberg, 1997). 인지 이론은 정보 처리의 편향이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과정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가정한다. 여기서 사회불안자의 정보처리 편향이란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와 같은 위협적인 정보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부정적 정보를 더 많이 기억하고 모호한 사회적 상황을 부정적, 위협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정보는 정서적 의미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사회적인 정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부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미소를 짓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우호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비웃거나 경멸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인지 이론에 따르면, 사회불안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모호한 정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는 편향을 나타낸다고 한다(Clark & McManus, 2002; Heinrichs & Hofmann, 2001).

사회불안자의 이러한 위협적/부정적 해석 편향을 검증하고자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Amir, Foa와 Coles(1998)는 일반화된 사회불안장애 환자와 강박장애 환자, 그리고 불안이 없는 통제집단에게 사회적인 내용과 비사회적 내용을 담고 있는 모호한 시나리오와 그에 해당되는 해석(긍정적, 부정적, 중립적)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시나리오에 기술된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해석이 무엇인지, 제 삼자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때 어떤 해석이 떠오르는지 순서를 정하도록 했다. 그 결과, 일반화된 사회불안장애 환자가 모호한 비사회적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두

집단과 차이가 없었지만, 모호한 사회적 사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해석을 더 높게 평정하는 편향을 나타냈다.

또 다른 연구(Stopa & Clark, 2000)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즉 일반화된 사회공포 증환자가 다른 불안장애 환자와 비임상 통제 집단과 비교해서 모호한 사회적 사건을 더 부정적인 방식으로 해석했으며 다소 부정적인 사회적 사건에 대해서 파국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환자집단이 아닌 사회불안(대인상호작용에 대한 불안으로 한정)이 높은 대학생과 사회불안이 낮은 학생에게 두 명의 대학생이 미팅하고 있는 장면을 기술하는 모호한 삽화를 읽고 그 이야기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해석을 자신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평정하게 하였다(Constans, Penn, Ihen, & Hope, 1999). 그 결과, 사회불안 수준이 높은 대학생은 낮은 대학생에 비해서 부정적으로 평정하여 위협적으로 해석하는 편향을 보인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의 평균 평정점수가 부정적인 방향이기 보다는 약하게 긍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사회불안자의 해석 편향이 더욱 부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사회불안의 해석 편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주로 사용된 방법이 자기 보고식이었다는 것이다(Amir et al., 1998; Constans et al., 1999; Stopa & Clark, 2000). 자기 보고식 방법은 참가자가 사회불안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 그 때의 정서적 경험을 일화적 기억에 근거하여 반응하는 것으로 불안 상황의 경험을 재구성하여 기억에서 인출하기 때문에 사회적 상황을 처음 접했을 당시에 진행되는 인지 과정

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Clark, 2001; Hirsch & Mathews, 2000). 또한 질문지 방법은 참가자의 인지가 주어진 질문에 의해서 재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참가자의 반응 전략이 극대화될 수 있다(권석만, 1996).

자기 보고형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인지 실험에서는 온라인(on-line) 방법이 시도되어왔다. 온라인 측정방법이란 자극 정보를 제시한 직후 자극 정보에 의해서 작동되는 심적 과정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역동적인 인지적 정보처리의 자동적인 특성을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다(이재호, 김성일, 1998). 또한 반응시간과 같은 수행 결과의 분석을 통해서 정보처리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의도가 혼입될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자기 보고형 검사에 비해서 의식적 판단이나 반응편향의 문제가 줄어들어 이점이 있다(MacLeod & Cohen, 1993).

자기 보고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글 이해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온라인적 접근(처음 정보를 접하는 시점)을 사용하여 불안한 사람의 위협적인 해석 편향을 알아보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다. 예를 들어, MacLeod와 Cohen(1993)은 불안이 높은 사람의 해석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위협적으로 또는 비위협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문장 다음에 제시되는 한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후속 문장을 읽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참가자 자신이 모호 문장에 부여한 의미가 제시되는 후속문장의 의미와 일치한다면, 불일치할 때 보다 이해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읽기 시간이 짧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 결과, 불안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서 위협적인 후속 문장을 더 빨리 읽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서 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모호한 문장을 위협적으로 해석하였다고 추론하였다.

또한 시험불안과 특질불안의 해석 양상을 여러 가지 온라인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하는 시도도 있었다. Calvo, Eysenck와 Estevez(1994)는 시험불안의 해석에 대한 편향이 자아 위협적 내용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위협적 혹은 비위협적 결과를 내포하고 있는 미완성 문장을 제시한 다음, 두 결과 중의 하나와 일치하는 목표 단어에 대한 어휘판단 과제(lexical decision task)를 실시하였다. 어휘판단과제는 목표단어가 단어인지 아닌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온라인 측정방법의 하나로, 반응시간을 통해서 어떤 해석을 하였는지 추론하는 것이다. 시험불안이 높은 사람은 자아 위협적인 해석과 일치하는 목표단어에 반응하는 시간이 중립적 해석에 부합되는 단어에 대한 반응시간보다 빨랐고, 위협적인 단어와 비슷한 비단어를 거부하는데 더 오래 걸렸다. 이에 대해서 시험불안이 높은 사람은 자아 위협적인 해석 편향을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모호한 문장 다음에 제시되는 목표단어를 가능한 빨리 소리 내어 읽는 명명과제를 사용한 연구(Calvo, Eysenck, & Castillo, 1997)에서 시험 불안이 높은 사람은 자아 위협적인 해석과 일치하는 목표단어에 대한 반응시간이 중립적인 해석에 부합되는 목표단어에 대한 반응시간보다 더 빨랐고, 위협적인 목표단어와 유사한 비단어를 거부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 그리하여 시험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자아 위협적으로 해석하는 편향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Calvo와 Castillo(2001)는 명명과제를 통

해서 불안에 대한 취약성과 자극의 위협 속성이 일치할 때, 통제 맥락에 비해서 예측 맥락 다음에 제시되는 해석 개념을 나타내는 목표 단어의 처리가 선택적으로 촉진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 불안이 낮은 사람은 목표 단어에 대한 명명시간이 비위협 통제 맥락에 비해서 비위협 예측 맥락에서 빨랐지만, 불안이 높은 사람은 두 맥락 간에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불안이 높은 사람은 목표 단어에 대한 명명시간이 통제 맥락보다 위협 예측 맥락이 더 빨랐으나, 불안이 낮은 사람에게서는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온라인 접근을 사용하여 불안과 해석 편향을 살펴본 연구는 비교적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본 연구의 관심사인 모호한 사회적 정보를 처음 접하는 시점에서 일어나는 해석 과정을 살펴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Hirsch와 Mathews(1997, 2000)는 어휘판단과제라는 온라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들(1997)은 단어나 짧은 문장을 제시하는 대신 실제 사회적 상황과 유사한 채용 면접 상황을 이야기 글로 구성하여 면접 불안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글을 읽는 동안 일어나는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였다. 글 중간 중간에 'you wonder if when you are in interview all your preparation will be'와 같이 위협적인 'forgotten' 혹은 비위협적 'useful' 의미의 단어가 후속해서 올 수 있는 모호한 문장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위협단어나 비위협 단어를 제시하여 어휘판단을 하게 하였다. 실험 결과, 면접 불안이 높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모호한 부분에서 위협단어와 비위협 단어에 대한 반응시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면접불안이 낮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모호한 부분에서 위협적 해석보다 비위협적 해석

에 해당하는 단어가 제시될 때 어휘 판단시간이 더 빨랐다. 이에 대해서 Hirsch와 Mathews는 면접 불안이 낮은 사람은 비위협적 해석 편향을 나타내지만, 면접 불안이 높은 사람에게서는 이러한 편향적인 처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Hirsch와 Mathews(2000)는 자신들의 이전 연구의 결과가 사회불안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도 반복해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전 연구와는 달리, 글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의 동일한 해석을 유도하는 문장을 기저선 조건으로 두어 모호한 조건과 비교하였다. 'If it is important to remember a particular detail, then it is annoying if it is' 은 면접상황을 기술하는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기저선 조건의 위협적 해석의 예시 문장으로, 이 미완성 문장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이 'forgotten' 이라는 위협적인 개념의 단어를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에 비해서 정서적으로 모호한 조건이란, 'you wonder if, when you are in the interview, all your preparation will be'와 같은 위협적인 'forgotten' 혹은 비위협적인 'useful' 해석이 가능한 단어가 올 수 있는 미완성 문장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자는 참가자가 모호한 조건에서 위협적으로 해석한다면 모호 조건에서의 'forgotten'에 대한 어휘판단시간이 기저선 조건에서 만큼 빨라야 한다고 가정하였다.

실험 결과, 통제 집단은 모호 맥락에서 비위협적 해석에 부합되는 단어에 대한 어휘판단시간이 기저선에서의 비위협 단어에 대한 반응시간과 차이가 없었으나, 위협단어에 대해서는 이러한 양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사회불안장애 환자는 모호 맥락에서의 위협적이거나 비위협적 해석에 부합되는 단어에 대한 어휘판단시간이 모두 기저

선 맥락보다 느렸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연구자(Hirsch & Mathews, 2000)는 사회불안장애 환자가 모호한 사회적 상황에서 위협적으로든 비위협적으로든 해석을 하지 않는 반면에, 통제 집단은 비위협적 해석 편향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사회불안 장애 집단의 문제는 통제 집단이 보인 비위협적 해석 편향의 손상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자기 보고식 방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 편향의 문제 등의 단점을 극복하고 모호한 사회적 정보를 접하는 시점에 일어나는 해석과정을 다루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된 통제 조건(비교적 명확하게 위협적, 혹은 비위협적 해석이 되는 조건)은 일반적으로 어떤 개념이 활성화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되는 통제조건의 개념과 다른 것이다. 따라서 모호한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위협적 혹은 비위협적 해석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통제 조건으로 해석이 거의 가능하지 않는 조건과의 비교를 통해서 위협적, 비위협적 개념의 활성화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사회불안과 모호한 사회적 정보가 제시되는 당시에 일어나는 해석 과정의 특성을 글 이해에서 사용되어온 온라인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Hirsch와 Mathews(2000)의 연구의 실험설계와는 달리, 통제 조건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해석이 되는 조건과 비교를 하는 대신에, 거의 해석이 일어나지 않는 조건과 비교를 하였다. 여기서 모호 맥락조건은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행동과 말에 담긴 뜻을 위협적 혹은 비위협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문장이나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자신의 행동이나 느낌을 추론

하게 하는 문장으로 구성하였다. 통제 맥락조건은 모호 맥락의 내용과 앞에 부분은 동일하지만, 앞에서 기술되는 사회적 상황과 상관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여 사회적 상황과 관련된 개념의 단어가 나오기 어려운 맥락으로 구성하였다.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상황과 유사한 텍스트를 자극으로 구성하였고, 텍스트 이해가 끝난 시점에서 목표단어를 제시하여 그 단어에 대한 어휘판단 시간을 통해서 사회불안관련 단어의 활성화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이 모호한 사회적 정보를 위협적으로 해석하는 편향을 보인다는 연구가 있었고, Hirsch와 Mathews(1997, 2000)와 같은 일부 연구자는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이 더 위협적으로 해석하는 편향을 나타내기 보다는 사회불안이 낮은 사람이 보이는 비위협적 해석 편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등 연구 결과가 다소 혼재되어 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사회불안이 높은 집단이 위협적으로 해석하는 편향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즉 사회불안집단은 위협단어에 대한 어휘판단시간이 통제 맥락 조건에 비해서 모호 맥락조건에서 보다 빠른 양상을 보이지만, 이러한 양상은 사회불안이 낮은 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

을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에 Hirsch와 Mathews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불안이 낮은 집단의 비위협적 해석편향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즉, 사회불안이 높은 집단은 단어 유형에 상관없이 어휘판단 시간이 통제 맥락과 모호 맥락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사회불안이 낮은 집단만 비위협단어에 대한 어휘판단시간이 통제 맥락 조건에 비해서 모호 맥락조건에서 빠를 것이라고 기대된다.

방 법

참여자

서울 소재의 C 대학교에서 심리학이나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총 316명에게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Social Avoidance and Distress)척도를 실시하였다. 이 척도에서 상위 15%와 하위 15%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사회불안이 높은 집단과 사회불안이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중 실험에 참가하겠다고 동의한 사람은 최종적으로 사회불안이 높은 집단 21명과 사회불안이 낮은 집단 25명으로 총 46명(남자 20, 여자 26)이었다. 사회불안이 높은 집단의 SADS 점수의 평균은 103(표준편차=8.57)이었고, 사회불안이 낮은 집

표 1. 두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사회불안		t
	높은 집단(n = 21)	낮은 집단(n = 25)	
성별(명)			
남	8	12	.46 ^a
여	13	13	(ns)
연령(세)	21.10(1.45)	21.44(1.66)	.74(ns)

주: ^a는 χ^2 값임.

단의 SADS 점수 평균은 55(표준편차=11.12)였다. 실험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두 집단은 성별 구성($\chi^2(1)=.46$, ns)과 연령 ($t(44)=.74$, ns)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도구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 척도(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Watson과 Friend(1969)가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정도와 잠재적으로 혐오스러운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는 경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하였다. 원래 진위형의 28문항으로 제작되었으나 이정윤과 최정훈(1997)이 한국판으로 번안하는 과정에서 점수 분포의 폭을 넓히고 개인차를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5점 척도로 변환하였다. 점수의 분포는 28점에서 14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국판 대학생의 SADS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2, 반분신뢰도 계수는 .94이며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8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3이었다.

실험도구

본 연구는 IBM PC 호환 펜티엄 III 컴퓨터와 15인치 컬러 모니터를 사용하였다. 실험 프로그램은 Quick Basic 언어로 구성되었으며 MS-DOS 상에서 작동되었다. 실험 지시문 및 실험재료의 제시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통제되었고 참가자의 반응시간도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

으로 측정하였다.

실험재료

사용된 실험글은 문지혜(2001)의 사회적 스트레스 질문지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실험글의 내용은 대학생이 흔히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불안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및 수행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실험글은 16개의 서로 다른 상황을 나타내는 글로 이루어졌는데 참가자가 글을 읽으면서 자신이 그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자기 참조 유발) 글의 주인공을 1인칭인 '나'로 기술하였다. 각각 3개의 문장과 1개의 미완성 문장으로 구성(어절 및 문장의 길이를 비슷하게 통제)하였으며 각 글은 맥락조건과 목표 단어 조건에 따라서 4개의 이형(versions)으로 재구성되었다. 참가자는 이 중 한 개의 이형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모호 맥락 조건은 사회불안과 관련된 상황을 설정하고 마지막 문장을 미완성으로 만들어 위협적 혹은 비위협적 해석이 가능한 조건이며 통제 맥락조건은 모호 조건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제시되는 목표 단어를 추론해 내기 어려운 맥락을 말한다.

실험글에서 사용된 목표단어는 모두 단어로 위협적인 것(16개)과 비위협적인 것(16개)이 반반씩 섞이도록 구성하였고 목표 단어로 선정된 위협 단어와 비위협 단어는 김향숙 (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긍정단어와 부정단어를 참고로 하여 임상심리학전공 대학원생 8명에게 단어에 대해서 각각 위협, 비위협성을 평정하게 하여 사용하였다. 실험글의 목표 단어에 대해 단어인지

비단어인지를 판단하게 한 후에 앞서 제시된 글에 대한 이해여부를 묻는 질문 문장을 하나씩 제시하였다. 질문문장에 대한 정답은 ‘예’, ‘아니오’ 반응의 비율이 동일하도록 구성하였다. 위협 단어와 비위협 단어의 길이는 3-6자로 제한하였다. 다음은 1개의 실험글에서 가능한 4가지 조건을 예시하였다.

모호 맥락 + 위협 목표 단어 조건

모호 맥락 나는 친구의 주선으로 레스토랑에서 소개팅을 하였다 나는 차를 마시면서 최근에 본 영화애기를 꺼냈다 상대는 묵묵히 내 말을 듣는다 그 사람은

위협목표 단어 지루해한다

통제 맥락 + 위협목표 단어 조건

통제 맥락 나는 친구의 주선으로 레스토랑에서 소개팅을 하였다 나는 차를 마시면서 최근에 본 영화애기를 꺼냈다 나는 이야기도중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위협목표 단어 지루해한다

모호 맥락 + 비위협 목표 단어 조건

모호 맥락 나는 친구의 주선으로 레스토랑에서 소개팅을 하였다 나는 차를 마시면서 최근에 본 영화애기를 꺼냈다 상대는 묵묵히 내 말을 듣는다 그 사람은

비위협목표 단어 경청한다

통제 맥락 + 비위협목표 단어 조건

통제 맥락 나는 친구의 주선으로 레스토랑에서 소개팅을 하였다 나는 차를 마시면서 최근에

본 영화애기를 꺼냈다 나는 이야기도중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비위협목표 단어 경청한다

실험글과 함께 32개의 삽입글이 사용되었는데 이재호와 이정모(1999)에서 사용된 실험재료를 수정한 것이다. 삽입글은 사회 불안 유발 상황과 관련이 없지만 주인공이 등장하고 사건의 발단과 결과를 기술하고 있는 짧은 이야기 글이다. 미완성 문장 없이 세 문장으로만 이루어졌으나, 문장이나 어절의 길이는 실험글과 유사하게 구성하였다. 실험글과 마찬가지로 글을 다 제시한 후에 목표 단어에 대해서 그것이 ‘단어’인지 ‘비단어’인지를 판단하게 하였다. 또한 앞서 제시된 글에 대한 이해여부를 묻는 질문 문장을 하나씩 제시하였다. 질문문장에 대한 정답은 ‘예’, ‘아니오’ 반응의 비율이 동일하도록 구성하였다. 삽입글에서 사용된 목표단어는 대부분 비단어로 구성하였다. 비단어는 명사형과 동사와 형용사(술어)의 형태가 각각 반반씩 사용되었다.

또한 본 시행 전에 연습 시행에서 사용한 연습글 4개는 사회적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이 아니지만 문장의 형식과 길이, 어절 등을 실험글과 유사하게 구성하였다. 역시나 목표 단어에 대한 어휘 판단과제를 실시(단어와 비단어가 각각 2개씩) 하였으며 이후 이해 여부를 묻는 질문 문장을 제시하였다(질문 문장에 대한 ‘예’와 ‘아니오’ 반응의 개수도 동일하게 2개씩).

절차

참가자가 실험실에 도착하면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한 후 컴퓨터 화면을 정면으로 보고 앉게 하였다. 실험 절차와 목적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대학생의 언어이해과정을 알아보는 것이라고 간략하게 소개되었다. ‘준비가 되었으면 스페이스바를 누르시오’라는 지시에 따라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다음 화면에 실험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문이 제시되었다. 모니터에 제시되는 지시문을 잘 읽고 그대로 따라서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였다. 또한 참가자에게 실험의 주요과제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 --’ 가운데 제시되는 글자가 단어인지 아닌지를 가능한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하는 것으로, 단어라고 생각되면 ‘예’(Y)키를, 단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아니오’(N)키를 누르는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는 단어 판단 후에 제시되는 질문문장이 앞서 제시된 글의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각 글은 RSVP (Rapid Serial Visual Presentation) 방법으로 문장은 띄어쓰기인 마디별로 화면 중앙에 제시되었다. 마디별 제시시간은 글자 하나당 350ms였고 글자 수가 하나씩 늘어날수록 제시 시간은 50ms가 더 늘어났다. 마지막 점화 단어가 제시되고 나서 목표 단어가 제시되는 사이의 시간 간격은 400ms였다.

어휘판단과제가 끝나면 제시된 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알아보는 이해검사가 실시되었다. 화면 중앙에 제시되는 질문 문장이 앞서 제시된 글의 내용과 일치하면 ‘예’(Y)키를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N)키를 누르게 하였다. 참가자가 질문 문장에 대해 답을 하고 나면 한 시행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의 표시가 화면에 제시되었다. 그 이후에 새로운 글이 어절별로

제시되면서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였다.

지시문에 대한 이해가 끝난 후 ‘예’(Y)키와 ‘아니오’(N)키에 손가락을 올려놓게 하였는데 본 시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반응키 연습과 실험 절차에 대한 숙지를 위해서 4번의 연습 시행을 실시하였다. 연습 시행이 끝나면 16개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실험글과 32개의 삽입글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무선적으로 제시되었다.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15~20분 정도였다.

실험설계 및 자료분석

본 실험의 설계는 2 (집단: 사회불안이 높은 집단, 낮은 집단) × 2 (맥락조건: 모호 조건, 통제조건) × 2 (목표단어 유형: 위협단어, 비위협단어)의 3요인 혼합 설계를 적용하였다. 사회불안 집단은 피험자간 변인이었고 맥락조건과 목표단어유형은 피험자내 변인으로 조작하였다. 종속측정치는 목표단어가 제시되고 나서 참가자가 반응키를 누르는 데까지 걸리는 반응시간(latency)이었다. 사회불안 집단, 목표 단어유형, 맥락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자료 분석에는 실험글의 목표단어에 대한 어휘 판단과제에서의 정반응(오류율은 10.9%)만 포함하였으며 반응시간의 평균이 300ms 이하이거나 표준편차 3이상인 반응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에서 제외된 반응은 모두 12%였다.

표 2에 사회불안집단, 목표 단어 유형 및 맥락 조건에 따른 어휘판단 반응시간과 정확률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였으며, 그림 1에 사회불안집단의 목표 단어에 대한 맥락효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어휘 판단과제에 대한 평균 반응시간의 변량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변량분석 결과, 사회불안집단, 목표단어의 유형의 주효과는 없었지만, 맥락의 주효과는 유의하였다, $F(1,44)=9.97, p<.01$. 즉 모호 조건(1061ms)

의 어휘판단시간이 통제조건(1141ms) 보다 80ms 더 빠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불안집단과 맥락 조건의 이원상호작용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F(1,44)=4.63, p<.05$.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집단별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불안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모호 맥락에서의 목표단어에 대한 어휘판단시간(1062ms)은 통제 맥락(1196ms)에 비해서 더 빠르게 나타났지만, 사회불안 수준이 낮은 집단은 목표단어에 대한 어휘판단

표 2. 사회불안집단, 목표단어 유형 및 맥락에 따른 어휘판단 반응시간(ms)과 정확률의 평균과 표준편차

사회 불안	목표 단어	반응시간		정확률	
		모호맥락	통제맥락	모호맥락	통제맥락
높은 집단 (21명)	위협	1069 (320)	1268 (451)	.90 (.15)	.83 (.28)
	비위협	1054 (322)	1123 (285)	.93 (.16)	.92 (.18)
낮은 집단 (25명)	위협	1105 (315)	1068 (261)	.90 (.14)	.93 (.15)
	비위협	1017 (260)	1105 (311)	.92 (.18)	.86 (.23)

()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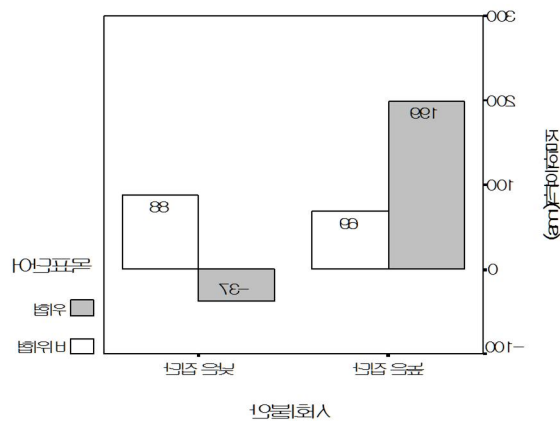


그림 1. 사회불안 집단의 목표 단어에 대한 점화 (맥락)효과 = (통제맥락 어휘판단시간-모호맥락 어휘판단시간)

시간이 맥락 조건 간에 차이가 없었다.

또한 목표단어 유형, 맥락, 집단의 삼원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44)=4.63, p<.05$. 이를 밝히기 위해서 목표단어의 유형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협단어에 대한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맥락 조건의 주효과는 없었고, $F(1,44)=3.31, ns$, 사회불안집단과 맥락 조건의 이원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F(1,44) =7.07, p<.05$. 집단별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불안이 높은 집단은 모호 조건의 어휘 판단 시간(1069ms)이 통제조건의 어휘판단시간(1268ms)보다 199ms나 빨랐다, $t(20)=-2.45, p<.05$. 그러나 사회불안이 낮은 집단은 맥락에 따라서 어휘 판단시간(모호vs 통제=1105ms vs 1068ms)에 차이가 없었다, $t(24) = .84, ns$. 이는 사회불안이 높은 집단에서만 모호 맥락에서의 위협 단어에 대한 어휘판단 시간이 통제 맥락보다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비위협 단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맥락에 대한 주효과만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44)=5.11, p<.05$. 즉 사회불안 집단에 상관없이 모호 조건의 어휘판단시간(1036ms)이 통제 조건의 어휘판단시간(1114ms)보다 빠르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불안이 낮은 집단에서만 모호 조건의 어휘판단시간이 통제 조건보다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다른 결과이다.

논 의

본 연구는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에 관여하는 요인으로 거론되어온 정보처리 과정 중에서 모호한 사회적 상황에 대한 해석 편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모호한 사회적 정보를 접하는 당시에 일어나는 해석 과정에 초점을 두고, 글 이해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어온 온라인 접근 방법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불안이 높은 집단은 위협단어에 대한 어휘판단시간이 통제 맥락에 비해서 모호 맥락에서 더 빠르게 나타

표 3. 사회불안집단, 목표단어 유형과 맥락 조건에 따른 어휘판단시간(ms)의 변량분석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유의도
집단	139167.61	1	139167.61	.47	.50
오차(집단)	13057778.73	44	296767.70		
맥락	289775.03	1	289775.03	9.97	.00**
맥락×집단	134668.97	1	134668.97	4.63	.04*
오차 (맥락)	1279049.94	44	29069.32		
단어 유형	126505.32	1	126505.32	3.3	.08
단어유형×집단	33510.94	1	33510.94	.87	.36
오차 (단어 유형)	1686878.62	44	38338.15		
맥락×단어 유형	70.07	1	70.07	.00	.97
맥락×단어유형×집단	187078.41	1	187078.41	4.29	.04*
오차(맥락×단어유형)	1919476.29	44	43624.16		

* $p<.05$, ** $p<.01$

났지만, 사회불안이 낮은 집단은 맥락에 따라서 위협단어에 대한 어휘판단시간에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사회불안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모호 맥락에서의 위협단어에 대한 반응 시간이 통제 맥락에 비해서 느린 경향성을 보임, 그림 1 참조). 또한 사회불안이 낮은 집단에 있어서만 비위협 단어에 대한 어휘판단시간이 통제 맥락에서 보다 모호 맥락에서 빠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비위협 단어에 대한 어휘판단시간은 통제 맥락보다 모호 맥락에서 더 빠르게 나타났다.

사회불안이 낮은 집단에서는 위협단어에 대한 반응시간이 맥락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회불안이 높은 집단에서는 위협단어가 모호 맥락에서 제시될 때, 더 빠르게 나타난 점은 사회불안이 높은 집단이 위협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결과로 불안한 사람들이 위협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편향을 보인다는 경험적 연구(Calvo et al., 1994; Eysenck, Mogg, May, Richards, & Mathews., 1991; MacLeod et al., 1993; Mathews, Richards, & Eysenck, 1989)와 사회불안자의 모호한 사회적 사건에 대한 해석 연구들, 사회불안에 대한 인지 이론의 입장(e.g. Rapee & Heimberg, 1997)과 유사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사회불안이 높은 집단이 위협적으로 해석하는 편향을 보인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었는가? 이를 주장할 수 있으려면, 사회불안이 높은 집단에서 위협 단어에 대해서만 통제 맥락보다 모호 맥락에 대한 반응시간이 빠르게 나타나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목표 단어의 유형에 상관없이 통제 맥락보다 모호 맥락에 대한 반응시간이 더 빨랐다. 따라서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이 모호한 사회적 상황에서 위협적인 해

석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위협적 해석 편향을 보인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위협 단어에 대해서 사회불안 집단 각각 모호 조건에서의 반응 시간과 통제 조건에서의 반응시간을 비교한 결과, 사회불안 수준이 높은 집단은 비위협 단어에 대한 어휘판단시간이 모호 조건과 통제조건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사회불안 수준이 낮은 집단은 모호 맥락에서 비위협 단어에 대한 어휘판단시간이 통제 맥락보다 빠른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비위협단어에 대한 맥락에 따른 주효과는 사회불안이 낮은 집단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사회불안이 높은 집단의 위협적 해석 편향의 가능성을 보다 지지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한편, 사회적 정보를 접하는 당시에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본 Hirsch와 Mathews(1997, 2000)의 연구 결과와 비교할 때는 어떤가? 그들은 사회불안자들은 모호한 사회적 정보를 처음 접하는 때에 위협적인 해석 편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비위협적인 해석 편향이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통제 조건을 달리해서 확인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통제 맥락의 사회불안이 높은 집단에서 단어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모호한 맥락에서의 어휘판단시간과 통제 맥락에서의 어휘판단시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었고 사회불안이 낮은 집단에서는 비위협 단어에 대해서만 반응시간이 모호 맥락에 비해서 통제 맥락에서 빠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사회불안이 높은 집단에 대한 그들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종합해 볼 때,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모호

한 사회적 상황을 접했을 당시에 어떠한 방향으로든 해석을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위협적인 해석이 보다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위협적이며, 비위협적 해석이 모두 활성화되어 위협적인 방식에 치우치는 해석이 어려울 수 있어 보인다. 이에 비해서 사회불안이 낮은 사람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비위협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음은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의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의 대상자가 비임상집단이었다는 점이다. 대학생 중에서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이정윤과 최정훈, 1997에 따르면, 이들은 중간정도의 사회공포증의 상단과 심한 정도의 사회공포증에 해당되었음)을 선발하기는 했지만, 임상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실험글에서 제시된 사회적 상황이 이들에게 불안을 충분히 유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리하여 사회불안장애의 해석적 특성이 강하게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불안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본 연구의 결과가 반복되어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불안은 우울과의 공존가능성이 높고, 특질불안이나 상태 불안 등과 같은 다른 정서적인 문제가 정보처리의 편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Huppert, Foa, Furr, Filip, & Mathews, 2003)을 간과한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Huppert 등(2003)은 부정적 해석 편향은 사회불안 증상의 심각도와 관련이 있으며 긍정적 해석 편향은 사회불안 보다는 특질불안이나 우울증과 같이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사회불안의 고유한 정보처리의 특성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후연구에서 우울증, 특질불안이나 상태 불안 등의 다른 사회불안 이외에 정서적인 상태를 측정하는 도구도 함께 도입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실험재료로 사용한 단어의 선정에서 정서가 평정과 단어의 길이 등을 고려하였으나, 반응시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 중의 하나인 단어의 사용빈도나 친숙도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은 점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작업 역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사회적 정보를 접하는 시점에서 일어나는 해석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실제 사회적 상황과 유사한 글을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의 반응이 실제 생활에서의 반응을 그대로 반영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언어 자극 이외에 생태학적 타당도가 높은 얼굴표정과 음성과 같은 자극이 연구에 도입되고 있다(문수중, 2000). 앞으로 언어자극이외에 이러한 다양한 자극을 이용해서 사회불안의 해석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사회불안의 해석 편향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미 제시된 정보를 사후에 평가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회불안의 모호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위협적/부정적인 편향을 주로 입증해왔다면 본 연구는 사회적 정보를 접하는 시점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사회불안의 해석과정에 대한 이러한 연구는 별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으로 아직 일관된 정보를 제공해 주

지 못하고 혼재된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제시된 정보를 사후에 평가하는 해석과정과 사회적 정보가 제시되는 시점에서 일어나는 과정에 있어서 구별되는 특성이 있는지, 있다면 여기에 어떠한 요인들(Hirsch, Mathews, Clark, Williams, & Morrison, 2003)이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면서 사회불안의 해석 편향에 대해 보다 풍부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권석만 (1996). 자기인지의 구조와 정보처리과정에 있어서 우울집단의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5, 17-31.
- 김은정, 원호택 (1997). 대인불안의 모델들: 개관. 심리과학, 6, 109-130.
- 김향숙 (2001). 사회공포증 하위유형의 기억편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수 (1997). 사회불안과 성공실패 경험이 자기 관련 정보의 기억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수중 (2000). 사회불안이 표정 및 음성정보를 통한 타인의 정서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손지혜 (2001). 사회적 스트레스, 역기능적 신념 및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이재호, 김성일 (1998). 언어 이해과정의 연구 방법. 이정모, 이재호(공편), 인지심리학의 제 문제 II: 언어와 인지 (155-182쪽). 서울: 학지사
- 이재호, 이정모 (1999). 정교화 추론의 온라인 생성 과정: 예견 추론.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및 인지 11, 261-276.
- 이정운, 최정훈 (1997). 한국판 사회공포증(K-SAD, K-FNE)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 251-264.
- Amir, N., Foa, E. B., & Coles, M. E. (1998). Negative interpretation bias in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 945-958.
- Beck, A. T., & Emery, G. (1985). *Anxiety disorders and phobias: A cognitive perspective*. San Antonio, TX: Psychological Corporation.
- Calvo, M. G., & Castillo, M. D. (2001). Bias in predictive inferences during reading. *Discourse Processes*, 32, 43-71.
- Calvo, M. G., Eysenck, M. W., & Castillo, M. D. (1997). Interpretative bias in test anxiety: The time course of predictive inferences. *Cognition and Emotion*, 11, 43-63.
- Calvo, M. G., Eysenck, M. W., & Estevez, A. (1994). Ego-threat interpretative bias in test anxiety: On-line inferences. *Cognition and Emotion*, 8, 127-146.
- Carrigan, M. H. & Randall, C. L. (2003). Self-medication in social phobia: A review of the alcohol literature. *Addictive Behaviors*, 28, 269-284.
- Clark, D. M. (2001). A cognitive perspective on social phobia. In W. R. Crozier & L. E. Alden(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social anxiety: concepts, research and interventions relating to the self and shyness (pp. 405-430)*. Chichester: John Wiley & Sons.
- Clark, D. M., & McManus, F. (2002). Information processing in social phobia. *Biological Psychiatry*, 51, 92-100.
- Clark, D. M., & Wells, A. (1995). A cognitive model

- of social phobia. In R. G. Heimberg, M. Liebowitz, D. Hope, & F. Schneier (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 treatment* (pp. 69-133). New York: Guilford Press.
- Constans, J. I., Penn, D. L., Ihen, G. H., & Hope, D. A. (1999). Interpretive biases for ambiguous stimuli in social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7*, 643-651.
- Eysenck, M. W., Mogg, K., May, J., Richards, A., & Mathews, A. M. (1991). Bias in interpretation of ambiguous sentences related to threat in anxie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144-150.
- Heinrichs, N., & Hofmann, S. G. (2001). Information processing in social phobia: A critical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1*, 751-770.
- Hirsch, C. R., & Mathews, A. (1997). Interpretative inferences when reading about emotional even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 1123-1132.
- Hirsch, C. R., & Mathews, A. (2000). Impaired positive inferential bias in social phobia.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 705-712.
- Hirsch, C. R., Mathews, A., Clark, D.M., Williams, R., & Morrison, J.(2003). Negative self-imagery blocks inferenc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1* 1383-1396.
- Huppert, J. D., Foa, E. B., Furr, J. M., Filip, J. C., & Mathews, A. (2003). Interpretation bias in social anxiety: A dimensional perspectiv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7*, 569-577.
- Liebowitz, M. R., Gorman, J. M., Fye,r A. J., & Klein, D. F. (1985). Social phobia: Review of a neglected anxiety disorde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2*, 729-736.
- MacLeod, C., & Cohen, I. (1993). Anxiety and the interpretation of ambiguity: A text comprehension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238-247.
- Mathews, A., Richards, A., & Eysenck, M. (1989). Interpretation of homophones related to threat in anxiety stat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8*, 31-34.
- Mattick, R. P., Peters, L., & Clarke, J. C. (1989). Exposure and cognitive restructuring for social phobia: A controlled study. *Behaviour Therapy, 20*, 3-23.
- Rapee, R. M., & Heimberg, R. G. (1997).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anxiety in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 273-283.
- Schneier, F. R., Johnson, J., Hornig, C. D., Liebowitz, M. R., & Weissman, M. M. (1992). Social phobia: Comorbidity and morbidity in an epidemiologic samp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9*,282-288.
- Stopa, L., & Clark, D. M. (2000). Social phobia and interpretation of social even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 273-283.

논문접수일: 2006년 12월 4일

게재결정일: 2007년 1월 14일

Social Anxiety and Interpretation Bias of Ambiguous Social Situations

Sin-Jae Park¹⁾ Myoung-Ho Hyun²⁾ Jae-Ho Lee³⁾ Jeong-Ah Lee²⁾

1) Department of Psychiatry, Asan Medical Center

2)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3) Department of Psychology, Keimyung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interpretation of social anxiety regarding ambiguous social situations using a lexical decision task. In order to examine this, with SADS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of 316 college students high socially anxious group (n=21) and low socially anxious group (n=25) were selected for the experiment. Participants were asked to make a decision as soon as possible whether the probe was a word or non-word regarding to the target word which was presented after priming stimulus (ambiguous social situation or control one). As a result, high socially anxious participants responded faster to the probe consistent with threatening meaning in an ambiguous context than in the control context, whereas low socially anxious group did not differ in the response latency across the context. As to the probes with non-threatening meaning, both groups all responded faster in an ambiguous condition than in a control context. It was found that high socially anxious participants tended to interpret ambiguous social situations in a more threatening way compared to the low socially anxious group, nevertheless the evidence could not tell strongly that socially anxious people showed a bias favoring threatening interpretation. In addition, Hirsch and Mathews(2000)'s position that socially anxious people did not make any kind of on-line interpretation was not supported. The discussion of the present study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were presented.

Keywords : social anxiety, ambiguous social situation, interpretation bias